

“승용차 억제· 시내버스 연계…지하철이 공공교통 중심축”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찬반 논쟁 팩트체크

오는 26일 도시철도 2호선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시민참여단 구성을 앞두고 이번 논쟁을 통해 광주의 도시교통시스템을 승용차가 아닌 공공(대중)교통 중심으로 대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광주 전체를 순환하는 공공교통 수단인 전무한 만큼 향후 예상되는 도시철도 1·2호선 운영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도시철도 1호선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한편 도시매연, 미세먼지, 교통 지·정체 등의 주변인승용차를 규제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인구는 정체기에 들어갔으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무려 14만1000여대가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대부분이 승용차였다. 2010년 51만8477대였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5년 61만1280대로 60만대를 돌파한 후 지난 8월 현재 65만9551로 14만1074대(27.21%)가 늘었다. 2014년부터는 매년 2만대 이상이 증가, 증가세가 더해지고 있다. 특히 2010년 40만4556대였던 승용차는 지난 8월 54만4207대로 13만9651대가 더해졌다. 자동차 증가분의 99%를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승용차의 급증과 공공교통에 대한 추가 투자 중단은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율에도 잘 나타난다.

2010년 38.0%였던 시내버스의 수송분담율은 2016년 34.7%로 3.3%p 감소한 반면 승용차의 수송분담율은 31.7%에서 40.7%로 9%p 높아졌다. 도시철도 1호선은 2.5%에서 고작 3.5%로 7년간 1.0%p

2호선 없인 1호선 역할 못해

유럽·일본·100만 이상 도시

도시철도로 교통 시스템 구축

수송률 높이기·적자 줄이기

시민단체 등 머리 맞대야

의 변화를 보였을 뿐이다. 공공교통의 중심축이 되는 도시철도 1호선이 광주의 동서를 가로지르지만, 인구밀집지역, 유동인구 다수지역, 중·고·대학교 등에 미치지 못하면서 근본적인 한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도시철도 1호선과 버스가 같은 구간에 중복 투입되는 등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승용차의 수와 이용의 증가는 도로의 신규 개설, 정비, 확장, 관련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15년 708억3000여만원, 2016년 702억5000여만원, 2017년 668억2000여만원 등 3년간 도로 개설 등에만 투입한 예산은 2079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시내버스, 철도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도로 개설 등에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은 물론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 이상의 주요 대도시들이 도시전체를 커버하는 도시철도를 근간으로 공공교통 중심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광주는 공공교통이 크게 불변하고, 승용차 편의만 높이는 후진적인 교통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도시철도 4호선 115.8km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의 유럽순방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에 부산·김해경전철과 동해선(부전·일광) 등 2개의 광역노선을 포함한 총 6개 노선, 167.2km의 간선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돼 있으며, 사상하단선, 양산선이 현재 공사중에 있어 2022년 개통되면 8개 노선, 185.5km로 늘어난다.

국토부에 지난해 5월 최종 승인을 받은 '부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앞으로 하단·낙산선, 강서선, 송도선 등 7개 노선, 82km를 추가 건설할 계획을 담고 있다. 인천 역시 도시철도 2호선, 58.5km가 운행중이며, 서울7호선 연장선,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 등 7개 노선, 96.11km를 추가 건

설하기로 했다. 대구는 도시철도 3호선, 83.75km이 운행중이며, 3개 노선, 51.2km를 추가 건설한다.

최완석 광주대 교수(도시교통 전공)는 “도시를 순환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전혀 없는 광주는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BRT(간선급행버스)나 노면전차가 대안이 될 수 없는 만큼 현재의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추진하되 운영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광주시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반도 평화 공감대 확대…교황 방북 중재

문대통령 7박 9일 아셈 참석·유럽순방 마치고 귀국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교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추동한 경과를 설명하고 유럽의 지지를 확대하는 데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황청 공식방문 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하고 사실상 교황의 수락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또 다른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을 최종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교황청과 북한 사이의 중재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황의 해외 방문은 국가 정상의 초청과 함께 그 나라 가톨릭 대표 단체인 주교회의 차원의 초청이 있어야 가능한데, 천주교 사제가 없는 북한에는 주교회의가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의인단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두 정상과의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맞춰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의 하나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문 대통령이 또 하나의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꺼내 이를 공론화한 것이다.

그러나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과의 정상회담, 아셈 의장성명 등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독일·이탈리아·덴마크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다자 외교 무대인 아셈에서 남북·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국면의 진전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각국 정상의 이해도를 높였다.

비록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명시적 협력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새 질서 정립에 대한 이들의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을 기운 점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상기 법무 “음주운전·리벤지 포르노 최고형 구형하라”

20만명 넘어선 청와대 청원 답변

정부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망 등 피해가 큰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경찰 단속 기준으로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적극 항소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박 장관은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

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또 경찰과 협력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현장에서 현행법으로 체포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하고,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한 경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라고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자 답

변자로 나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 밖에도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 포르노)’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제경영교육 재인증 획득

더 큰 세상을 향한 열정과 꿈, 전남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이 함께 합니다!

경영대학

- 전 세계 106개교에 걸친 Exchange Student Program
- 해외 유수대학과의 Double Degree Program
- 글로벌 현장 감각을 위한 Business Field Program



-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가 부여하는 국제경영교육인증
- 미국 주요 대학 학장들이 설립(1916년)한 비영리 인증기관, 다양한 분야의 교육지표(교수진 역량, 우수학생 유치, 우수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 인증
- AACSB 2012년 최초 인증, 2018년 재인증 획득

경영전문대학원

- 국제화 프로그램
Global MBA의 100% 영어 강의
- 전문 트랙별 MBA 교육 프로그램
실무핵심 전문 경영 인력 양성을 위한 재무회계, 빅데이터, 기술경영 트랙 운영
- Capstone Project를 통한 문제해결중심교육
기업의 실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 환경에 맞는 현장 문제 해결 중심 교육 제공